

1952년 3월 3일 제13회 중의원 행정감찰특별위원회

○ 일시: 1952년 3월 3일(월) 오전 11시 15분 개의

○ 발언자:

- 야마구치 다케히데(山口武秀) 의원(일본공산당 소속 중의원 의원, 농민운동가)
- 기시로 이마오(木城以末男) 증인(가나가와현(神奈川県) 직업안정과장)

○ URL: <https://kokkai.ndl.go.jp/#/detail?minId=101304280X01219520303&spkNum=268¤t=3>

○ 해제(개요 및 특징)

주일 미군이 위안부 제공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야마구치 의원의 집요한 질문에 가나가와현 직업안정과장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음. 이에 대해 야마구치 의원은 민족적 자존심을 강조하고 전날 니가타현 차석검사의 증언과 대비시키면서 유관 행정기관 간부의 무관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음.

○ 주요 내용 번역

- ▷ 야마구치 위원 “미국이 일본에 진주해온 이래, 첫 번째로 가나가와현(神奈川県)에 미군의 진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나 그 후에 가나가와현은 미군으로부터 일본의 부녀자를 위안부로 미군에 제공하라는 요구를 받았던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 과장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 ▷ 기시로 증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군으로부터 위안부에 관한 요구가 있었는지를 질문하셨는데요, 저 자신 그런 일은 들어 본 적도 없고, 또 그런 요구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적어도 직업안정기관은 그런 직업을 소개하는 일은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으며, 아무런 관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야마구치 위원 “당신은 관계가 없었다고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만, 직업안정과장이라는 자리에 앉아있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신을 거치지 않고 다른 쪽을 통해 그와 같은 요구가 있었고, 그 요구에 따라 위안부 공출(供出)이 이루어졌다는 것 같은, 다른 쪽의 문제로라도 듣지 못했나요?”
- ▷ 기시로 증인 “듣지 못했습니다.”
- ▷ 야마구치 위원 “지극히 유감스럽군요. 제가 유감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유감스럽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여기서 증언이 있었을 때, 니가타현의 차석검사조차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검사의 증언에 따르면 제공을

요구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당신보다는 관심이 적어도 좋을 입장인 사람입니다. 당신만큼 이 문제와 인연이 깊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을 당신이 모른다는 것은 당신의 현재 직무를 생각하더라도 유감입니다. 무엇보다 그런 민족적 굴욕의 문제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다면,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답변이 없었다면 그걸로 됐습시다만, 가나가와 현 직업안정과에 대해 지극히 유감이라는 제 의견만 표명해두겠습니다.”